



25일 부안에서 소 럽피스크병이 발생에 따라 17시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럽피스크병 대응상황을 점검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모색

### 제7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 특별법 제시 조항 따른 영향 전북도의 대응방안 논의

전북도와 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전북연구원)는 25일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와 전문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7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 탄소중립 포럼 위원장인 임성진 전주대 교수의 인사말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및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한정수(신선 선거구) 위원장의 축사로 포럼을 시작했다.

김승완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지자체 대응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분산에너지가 그 규모보단 위치가 중요한 이유와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에 제시된 조항들에 따른 영향 및 전북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후 김의경 인천대 교수, 국경수 전북대 교수, 권태훈 한국에너지공단 부장,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서난이(전주9 선거구)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정토론을 통해 분산에너지법 관련 전북도의 대응방안과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펼쳤다.

'전북 탄소중립 포럼'은 전북도와 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 주관으로 각 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차



전북도와 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5일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와 전문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7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

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등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전문가, 도의회 행정 등 30여 명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이다.

지난 4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한국경제 대전환 이단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산업, 에너지전환 건물, 정책, 농축산, 실천사업 부문 등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11월 제7차 포럼을 앞두고 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통하여 전문가 중심의 탄소중립 전략을 제안받았으며, 앞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본격

### 이병도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 내달부터 시행 매년 사례 실태조사 피해유형 분석 사례별 대응 예방 교육·홍보,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

수도권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1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법률·금융·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피해가 확인된 주택임차인에게 긴급지원주택 지원,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북도는 매년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유형을 분석하고 사례별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철저한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북도는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

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106건이며 피해 금액은 74억7,000만원이다. 접수된 106건 중 102건의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결과 피해자 인정 30건, 일부 인정 43건, 불인정 7건으로 총 80건이 최종 결정된 상태다.

이병도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또는 경·공매, 부동산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인해서 주택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전북도가 나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이에 앞서 주택거래시 부당계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전북도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탄소섬유방위산업발전 공로 인정

### 김희수 도의원,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한국사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도의회부문, 2023 탄소섬유방위산업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김희수 의원은 2선 도의원으로선 전북지역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김 의원은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가 전라남도'로 육성해 온 탄소섬유 산업을 방위산업에 접목시켜 방산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9월에는 정부의 방위산업 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확대에 발맞춰 전라북도 기업의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처럼 김 의원은 전라북도를 새로



운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 메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훈 기자

#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방안 모색

### 김슬지 도의원, 토론회 열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난 24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간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발제 백승철 퍼센트 대표), 'IT 교육격차 해소 방안(발제 송용남 공학도서관 대표)', '메타버스 활용 교육방안(발제 황근별 텔로스 대표)'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최서연 전주시의원, 전북교육청 민원성 미래교육과장 이강 청의안제교육과장 부안여고 학생 7명 등이 토론자

로 참여했다.

김슬지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원격수업이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오히려 교육격차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라면서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적 요인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안여고 학생 7명이 참석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교육격차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가감 없이 표현됐다.

부안여고 A 학생(1학년)은 IT 기술이 기존 교육을 보완한다는 점은 공감

하지만 가정 내 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으면 이런 기술이 역으로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B 학생(2학년)은 "학교에서 조별 과제 하면 친구들과 간에도 프로그램 활용 능력의 정도가 다른 것을 느낀다"면서 "스마트 기기 보급, 다양한 기술 활용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체계적인 IT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부안여고 학생들은 또 "다양한 곳에 가서 체험하고 싶지만 거리는 물리적 한계로 그럴 수 없는 점이 아쉽다"며 "메타버스가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메타버스 체험 자체로도 실제 방문한 것과 같이 생활기록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나무시장 운영
- 임야경영, 컨설팅지도
- 벌초대행
- 기계톱 면세유공급
- 퇴비·고추 비료판매
- 임산물 재배지도
- 조합원 가입
- 정기적금
- 일반·담보대출
- 공과금 자동이체
- 정기예금
- 정책자금 대출
- 인터넷·모바일 banking
- 산림조합 상호

ASJ 부안군산림조합  
063)584-3089, 581-3301